순천시 농특산물 도시 소비자 공략 나선다

7~10일 고양 킨텍스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참가
차문화대전·메가쇼 등 직거래장터 참여 올 13억원 판매 목표
내달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개장…판로 개척·소비 촉진 박차

순천시가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 도시 소비자 공략에 발을 벗고 나섰다.

순천시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이하 특산물 페스티벌)에 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순천시는 특산물 페스티벌를 통해 지역대표 농·축·수산·특산물 홍보 및 판매와 백화점·마트 등 유통사 MD 구매상담 평가회로 도시소비자들에게 농·특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참가 농가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는 7일에는 국제 차문화대전(삼성동 코엑스)에 나서고 14일에는 메가쇼(일산 킨텍스)에 참여하는 등 6월 한 달 동안 총 7회의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함초와 매실, 장류, 약초류 등의 가공품과 차류, 우수 농·특산물 등 13개 업체 200여개 우수 농·특산품을 선보인다.

순천시는 지난해 직거래행사와 전국단위 축제행사장, 박람회 등 63곳에 참가해 총 11억2900만원의 농·특산물 판매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3억원 이상 판매가 목표다.

이에 앞서 시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순천만국가정원 내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개장에 이어 오는 7일에는 2호점인 조례호수공원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직매장을 임시 개장해 일주일 동안 시설 점검 및 출하, 진열, 판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했다. 2호점은 임시개장 기간 동안 6300여명이 다녀갔으며 1일 평균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호응을 얻었다.

지난달 30일부터 임시개장에 들어간 순천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인 조례호수공원점이 오는 7일 공식 영업을 시작한다. 〈순천시 제공〉

조례호수공원점은 영세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을 우선 배려하는 정책으로 순천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로 판매된다. 시민주주 1089명이 참여한 민관공동출자법인 순천로컬푸드(주)가 운영을 맡는다.

시는 이와함께 순천 농산물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순천시 고유의 통합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서울 가락동 가락몰 입점 등을 통해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판매해 성과를 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직거래장터와 농·특산물 박람회의 지속적인 참가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순천시의 우수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 드라마촬영장에 실내촬영장 신설

새 볼거리·체험시설 늘려…35억원 투입 내년까지 조성

순천시는 연간 75만명 이상 방문하는 '드라마촬영장'에 새로운 볼거리와 체험, 실내촬영을 위해 '실내촬영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지만 외부촬영과 외부관광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순천 드라마촬영장에 들어설 실내촬영장 조감도.

하지만 한류관광 콘텐츠의 지속적인 제작 발굴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체류형 관광활성화를 위해 드라마촬영장 인근에 국비를 지원받아 실내촬영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설계공모를 시행 하고 디자인을 확정한 후 부지면적 5969㎡, 지상 2층, 연건평 1000㎡으로 실내촬영장, 체험장, 관람객 휴게공간 등을 오는 2019년까지 조성한다.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이미 확보된 21억원을 들여 지난 4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업체와 용역을 착수했으며 7월 말께 용역이 끝나면 후 8월초 착공할 계획이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

예술작품·정원 결합한 새 현충시설 건립

순천만정원에 현충정원 준공

시민이 직접 만든 예술작품과 정원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현충시설이 5일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에 문을 열었다.

순천시는 이날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조충훈 시장과 보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정원 준공식을 했다.

순천에 있는 현충시설은 죽도봉 공원에 있었지만, 지대가 높아 접근성이 떨어져 고령의 보훈 회원들의 참배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세계적인 조형미술가 강익중 작가와 손을 잡고 국가정원 내 부지 2244㎡에 높이 3.8m 지름 36.5m의 원형 예술작품과 정원을 결합한 새로운 현충정원을 만들었다.

작품 지름은 36.5m로 365일 동안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호국영령을 뜻한다.

시민참여 예술작품 7만점과 강익중 작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리랑을 모자이크해 색다른 모습으로 꾸며졌다. 죽도봉공원에 있던 위패 1830개는 현충정원 내 비석 '꺼지지 않는 불꽃'에 함께 모셔 희생정신을 기리게 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보훈회관을 지난해 12월에 건립하고 오늘 현충정원 준공까지 마무리돼 가슴 뿌듯하다"며 "현충정원 준공으로 일상 속에서 산책과 추모하는 호국도시 순천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5일 조충훈 순천시장 등 관계자들이 순천만국가정원에 새롭게 자리한 현충정원시설에서 준공을 알리는 불을 지피고 있다. 〈순천시 제공〉

지역 우수농산물 공동선별·마케팅 3억여원 지원

순천시는 배와 매실, 복숭아 등 지역 우수농산물의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과 농산물 마케팅, 산지유통 활성화 등 3억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유통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역 생산 우수 농산물을 순천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등급별로 분류해 공동선별하고 이를 통합마케팅 조직에서 대형유통업체로 판매하게 된다.

산지유통 활성화 등 맞춤형 시책 지원으로 농가는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는 순천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선별기, 저장고 등 노후화된 시설물 개보수로 농산물 품질 향상과 농산물 입·출고비 및 출하 장려금 지원으로 농가 및 산지유통조직의 경영비 절감을 지원한다.

지난해 순천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는 배, 참다래, 매실, 복숭아 등 1만5000t을 처리하고 6억5000만원을 수출하는 등 총 260억원의 농산물을 판매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광양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반대"

"광양만권 환경오염만 가중"

광양시 황금산단에 건립을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발전소에 대해 순천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 순천시는 광양그린에너지㈜가 지난해부터 광양시 황금산단 내에 추진해온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광양만권 전기 수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광양만권 환경오염만 가중시키는 화력발전소 건립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함께 "황금산단에 건립을 추진 하고 있는 220MW급 화력발전소는 우드펠렛, 우드칩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이라고 표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원료로 사용되는 펠렛은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고 밝혔다.

순천시의 이 같은 반대 입장은 화력발전에 필요한 다량의 우드펠렛이나 우드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충분치 않고 수입 목재가 사용될 것이며 값싼 수입 폐목재 사용은 유독물질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예상때문이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순천시는 광양에 바이오 매스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순천시민의 건강권 훼손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광양만권 인근에는 포스코에너지와 여수화력, 하동화력등 7개 발전소가 있어 전기 공급은 충분한 편이다.

새로운 발전소 건설 이후 청정발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인데 굳이 화력 발전소를 추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는것이 순천시의 입장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자원봉사센터, 골목길에 태양광 전등 설치

순천시자원봉사센터(소장 김일중)는 최근 재난재해봉사단 20여명과 함께 안전한 밤길 만들기와 야간범죄예방 차원에서 순천시 취약지역 내 골목길에 태양광 전등을 설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프로젝트'로 시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순천시 재난재해 봉사단원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등이 참여해 오래된 골목이 밀집된 향동 일대에 총 30개의 태양광 전등을 설치했다.

한편 재난재해봉사단은 지난 2017년에 중앙동 일대에서 2회기의 활동을 실시했으며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으로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해 왔다.

/순천=박선천 기자 psc@kwangju.co.kr